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6월 26일(주일) 제1399호

예배의 회복! 선교의 부흥!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6월 30일~7월 2일 서빙고 본당, 7월 3일 장충체육관

2022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 (이하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가 드디어 막 오른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7월 3일에는 오후 1시 30분 장충체육관에서 집회가 열린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서는 6월 30일(목)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부장) '성령을 받으라', 7월 1일(금)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예배를 회복하라', 2일(토) 주누가 선교사(GO선교회) '열방을 품으라', 3일(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재훈 담임목사 '킹덤 파이오니어'를 주제로 설교한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 참가를 원하는 청년들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전 주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에는 '출석 교회 및 공동체, 이름,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참가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회비는 없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집회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2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가 6월 30일 막 오른다.



CGNTV PD의 선교지 탐방기

〈어디든가연〉

‘노크’에 매주 토요일 업로드

CGNTV가 여름 아웃리치 시즌을 맞아 선교지를 탐방하는 여행기 〈어디든가연〉을 론칭했다. 〈어디든가연〉은 CGNTV 유튜브 채널 노크의 이가연 PD가 직접 선교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여행지는 브라질 아마존이다. 〈어디든가연〉 아마존 편에서는 아마존 물줄기를 따라 마약을 파는 청년들과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CGNTV 유튜브 채널 노크에서 시청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영상을 업로드한다.

/ 김영선 기자

‘달려라풍당’ 챌린지 1억 6천만 원 모금

6월 30일까지 ‘풍당교회학교’ 지원 교회 접수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달려라풍당’ 챌린지에서 후원자 4천 6백여 명이 약 1억 6천만 원을 후원했다. 달려라풍당 챌린지 시상식이 지난 6월 23일(목)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달려라풍당’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후원자들을 격려하고, 소정의 상품을 수여했다.

누적거리 2,544.2km로 최고거리상인 ‘달려라풍당상’을 수상한 최용일 성도는 “CGNTV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려라풍당’ 준비위원장 김정훈 장로는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교회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달려라풍당 챌린지 후원금은 ‘풍당교회학교’를 돕는 데 사용된다. 풍당교회학교는 지역 교회에 스마트TV, 교회학교 콘텐츠 제작, 허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CGNTV에서 풍당교회학교에 지원할 교회를 찾고 있다. 국내 정식교단 등록교회, 성인 성도 100명 이하인 교회, 유아~초등학생 어린이가 1명 이상인 교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된다. 6월 30일까지 네이버 폼(QR 코드)으로 신청을 받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양지온누리 창립 10주년

26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예배

양지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창립감사예배를 6월 26일(주일) 오전 11시 30분 양지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는 이재훈 담임 목사 축하 영상 상영, 도육환 목사 설교, 케이크 커팅식, 특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2012년 ‘열방을 품은 전원교회’를 꿈꾸며 국내 9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열방을 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도육환 목사(양지온누리교회 담당)는 “양지 온누리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 홍하영 기자

맛있는 말씀 해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구를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하고, 책에 써두기도 하며, 옷이나 문구류에 인쇄해서 강한 확신의 슬로건으로 삼기도 한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사업, 학업, 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구절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맥락과 의미에서 전해진 말씀일까?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느니라”는 말은 ‘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건강하다, 능력을 가지다, 할 수 있다’는 폭넓은 뜻을 가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있다. 이것은 앞뒤 맥락에서 살펴야 하는데 앞선 11~12절에서 열거된 것들을 가리킨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

11절에서 언급한 “자족하다”는 말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다. 바울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다. 12절에서 언급된 ‘모든 일’이란 이후에 열거한 환경과 조건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선언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진정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을 재서술한 표현이다. 한마디로 바울은 “내가 모든 상황을 자족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것이다. 바울이 확신을 가진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이다. 바울은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심을 굳게 확신했고, 체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는 14~15절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빌 4:14~15).

바울이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서나 자족하는(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말이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도움과 후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감사할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며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구절을 서신서 전체 맥락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네 권의 서신서 중 하나다. 바울은 언제 어떤 처형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에 있었다.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빌립보서의 배경적 정서는 ‘기쁨’이며, ‘기뻐하라’는 명령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신앙의 참된 기쁨을 의미한다. 바울도 옥중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1:4, 18:2:17, 18, 4:10)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의 기쁨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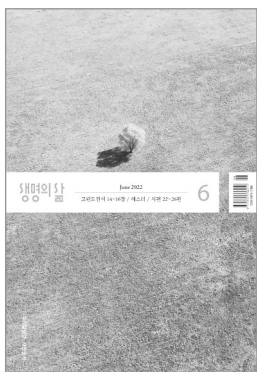
빌립보서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기쁨을 가르쳐주는 서신이다. 바울이 모든 형편 중에도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던 능력 때문이다(빌 3:9).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외부의 어떤 성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라(to do)”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to be)”고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구원이며 영생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목표성취를 위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다. 이미 확신한 구원과 승리를 담대하게 찬송해야 할 말씀으로 삼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이해영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기도



6월 27일~
7월 3일

-목상 포인

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인생의 고뇌와 탄식을 마음으로 담아낸 기도서다. 시편 기자

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번 주 시편 23-29편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자. 나의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바꾸자.

-본문(시편 23:1-29:11)

23편: 좋은 목자만 있으면 양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따르는 목자는 창조주요 전능자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돌보심 아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24편: 누가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이다. 손과 마음과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준비

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영광의 왕’이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25편: 시편 기자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수치, 근심, 괴로움, 곤고함, 환난을 겪는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해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교훈과 언약을 붙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물에서 벗어나 수치 당하지 않기를 간구한다.

26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해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죄인 취급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단련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는 앞으로 도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른길로 가겠다고 서원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호소한다. 진실하고 의롭게 살았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담대히 구한다.

27편: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공격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신의 ‘빛, 구원, 능력(힘)’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은 평생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토해내는 자들로 인해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부르짖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을 확신한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평안과 승리를 누린다.

28편: 시편 기자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

짖는다.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신 듯 하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찬송한다.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한다.

29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시편 기자는 특히 힘(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한다.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과 우레와 번개를 치게 하고 백향목도 꺾는다. ‘여호와 의 소리’로 물과 산과 광야를 떨게 하는 힘 있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본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택하신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적응을 위한 가이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시다.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고 순종하자. ▶하나님은 나의 곤고함과 환난을 다 아시지만, 내가 기도로 아뢰기를 원하신다.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번 주간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로 깊이 나아가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당할 때 맞대응하지 말고, 시편 기자처럼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자.

/ 생명의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성균이와 가족을 위해서!

성균이는 아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7년 전, 성균이가 10살이던 해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7살이 된 지금까지 혼자 서거나 걸을 수 없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넓어서 시력 저하, 복시, 언어장애, 기억력 장애, 연하곤란, 턱관절 장애, 강직 외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위루관으로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갈아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아픈지 3~4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균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성균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균이를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을 기쁘게 순종하는 성균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십시오. 또한 아들의 뇌출혈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위기로 많이 힘든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전도집회에 초청할 예정입니다. 남편과 저, 성균이, 주원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여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율법을 어긴 유대인의 죄

로마서 2:12~29

“우리의 삶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도 심판하십니다. 로마서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돼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12~15절).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본성과 양심을 따라 심판합니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문제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16절).

‘은밀하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죄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십니다.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동기와 사고와 생각까지 심판하십니다. 최후 심판의 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최후의 심판 앞에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도, 율법도 아닙니다. 예수 그

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사실과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17~18절).

‘유대’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인 특권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종교적인 의무에는 태만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더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소망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과 경배는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19~20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방인들과 구별하며 무시하고,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에 통달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

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21~24절).

바울은 아주 강하게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간음하고, 우상이라 하면 질색하면서 이방인 신전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여기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이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굉장한 기대와 비판과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지나친 관용과 너그움을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드러나는 죄든, 감춰진 죄든, 종교적인 전문가든,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격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무참히 짓밟히는 불행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은 간음하고, 우상을 섬겼던 옛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것처럼,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서가 아

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25~29절).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어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반면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따라 지킨다면 할례자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고, 할례가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종교적인 상징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갈 5:6).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직분이나 상징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삶이 신앙을 아름답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상징과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구원은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직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온전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은 문자나 상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축복과 칭찬은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특권을 가졌으면 책임도 많이 요구됩니다.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자리를 지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1. 학교폭력 개념과 특성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조은미 집사
(분당B공동체, 교육부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학교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한 아이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과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안은 처벌이 아니다. 적절한 처벌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다.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연재에서 필자는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극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도움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노출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사례, 문제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 첫 코너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올바르게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 비행과 엄연히 다르다.

먼저 학교폭력과 일반 범죄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에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관계성’이다. 같은 학교

동급생, 선후배 관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과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은 정신적 충격의 차이가 크다. 학교폭력은 관계를 맺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큰 상처를 남긴다.

둘째, ‘지속성’이다. 학교폭력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어진다. 학교는 일주일에 5일을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폭력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끝나지 않는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큰 좌절감을 주고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셋째, ‘공연성’이다. 학교는 공동체 생활이 주를 이루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장면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 학생에게 폭행, 따돌림, 모욕, 성폭력 등을 당하는 장면이 제2, 제3의 학생들에게 노출된다. 피해 학생이 느끼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특징은 ‘인성형 폭력’이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언어폭력과 왕따, 사이버 따돌림 등 인성이 부족해서 학교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 가해 학생 중에 피해 학생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은 가정에서 키워줘야 한다. 내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가벼운 장난에도 친구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아이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해줘야 한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6월 20~21일 본문(에 8:1~5, 에 8:11~16)



1. 에스더 왕비는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아하수어로 왕에게 울며 이것을 간청했어요.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간청한 것은 무엇인가요?(에 8:3)

2.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더 왕비의 부탁을 들어주고, 유다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아하수어로 왕을 통해 유다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주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① 행복 ② 기쁨 ③ 슬픔 ④ 영예 ⑤ 만족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5명)

강연우(수원온누리교회) / 이시율(대전온누리교회) / 윤은서(서빙고온누리교회) / 김준성(서빙고온누리교회) / 임승주(서빙고온누리교회)



24.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달려라풍당’ 챌린지 차세대 참가자 간증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고 뜻깊은 도전!

자전거로 ‘달려라풍당’ 챌린지와 국토 종주 도전한 이한비 학생



저는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참여했고, 지금은 국토 종주를 하고 있어요. 달려라풍당 챌린지에서 기념품으로 주는 티셔츠가 갖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도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더 많이 달려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돕고 싶어졌거든요. 후원금이 많이 모여서 더 다양한 차세대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렸어요.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이화령(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을 넘었을 때였어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비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오실 때까지 잠깐 멈춰 있다가 비옷을 입고 남은 언덕을 넘었어요. 옷이랑 신발, 양말까지 다 젖었는데도 이화령고개를 무사히 넘었다는 사실이 기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어요.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지난해와 올해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길

을 잘못 드는 실수를 했어요. 아빠보다 먼저 달리다가 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다른 길로 가 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안 와서 돌아가 봤더니 길을 잘못 든 것을 알았어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길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어요.

‘달려라풍당’ 챌린지는 끝났지만, 아빠와 함께 국토 종주를 계속하고 있어요. 쉬는 날마다 자전거를 45km씩 타는데 달리면서 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구경하면서 자전거를 타면 뭉친 근육이 아픈지도 몰라요. 남은 국토 종주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할거예요.

/ 이한비 학생(도곡 파워웨이브, OEM공동체)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해야 한다!”

엄재준 집사의 또 다른 이름은 ‘봉사전문가’

‘봉사전문가’라는 표현만큼 엄재준 집사를 잘 설명해주는 말이 없을 것 같다.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전문가 엄재준 집사는 틈만 나면 아니 틈을 내서 봉사활동을 다닌다. 본인의 달란트를 활용한 엄재준 집사의 봉사활동은 두 손과 교정테이블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큼지막한 엄재준 집사의 두 손은 ‘치유의 손’이다.

봉사전문가 엄재준 집사(중종로공동체)를 만났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봉사활동은 예수 안 믿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귀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나요? 무엇보다 이웃을 섬기면 제가 더 행복해지거든요.”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봉사전문가로 불리는 엄재준 집사.

엄재준 집사는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다. 카이로프랙틱은 손을 이용해서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고, 신경 근육 골격계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이다.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서 매력적인 치료법이다.

“카이로프랙틱은 손을 뜻하는 ‘카이로(chiro)’와 치료를 뜻하는 ‘프랙시스(praxis)’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손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한 치료법이 도수치료, 추나치료 등이 있습니다. 모두 장점과 매력에 있는 치료법인데 저에게는 교정테이블과 두 손만 있으면 어디서든 봉사할 수 있어서 카이로프랙틱이 가장 좋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배운 ‘카이로프랙틱’

엄재준 집사의 이야기는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왜 봉사전문가라고 소개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엄재준 집사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할까? 그가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시작한 1999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월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일 년에 한두 번 봉사활동 하기도 쉽지 않은데 매

월 봉사활동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심이 들었다. 봉사활동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엄재준 집사의 마음은 더 귀했다.

그런데 아직도 대중화되지 않은 카이로프랙틱을 20여 년 전에 배운 이유가 궁금했다. 엄재준 집사가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 아들을 위해서 카이로프랙틱을 배웠다.

“호산이가 태어났을 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서둘러 큰 병원에 갔는데 염색체 이상이 있다면서 첫돌 지나기 전에 죽을 거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호산이와 저희 가정은 그 고비를 이겨냈습니다. 호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살다 온 지인이 카이로프랙틱을 소개해줬습니다. 호산이가 5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재준 집사는 아들의 건강이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카이로프랙틱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버렸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으면서 호산이의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호산이와 함께 몇 년 동안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삶이 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카이로프랙틱이 정말 귀하고 매력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IMF 금융위기

가 터지면서 제가 운영하던 여행업을 정리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카이로프랙틱이 저의 새로운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픈 아들이 제 선생님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면서 사업 실패를 극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께 ‘왜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따질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다. 엄재준 집사는 그 힘든 시간을 아픈 아들 덕분에 지나올 수 있었다.

“호산이가 저의 선생님입니다. 호산이를 통해서 아픔이 무엇인지 알았고, 아픈 사람을 공감하게 되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더욱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더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히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봉사활동’

엄재준 집사가 카이로프랙틱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신앙이었다. 엄재준 집사 가정은 1999년부터 온누리교회에 출석했는데, 당시 “선교지로 가라!”는 고 하용조 목사의 외침에 크게 감동하고 신앙의 지경이 넓어졌다.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 장애인을 위한 예배 부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왔더니 새로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선교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여행업을 정리하고 온누리교회 안내실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카이로프랙틱을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부터는 2년 동안 매일 봉사를 다녔습니다. 봉사활동이 제가 할 수 있는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이 삶과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엄재준 집사는 선교지, 농어촌교회, Acts29 비전빌리지, CGNTV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카이로프랙틱 봉사활동을 다녔다. 카이로프랙틱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는 장점도 있었다. 봉사활동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었다.

“열심히 봉사활동 하면서 제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그 덕에 카이로프랙틱 실력이 날로 좋아졌습니다. 제가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봉사활동 덕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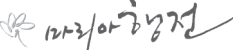
엄재준 집사의 꾸준한 봉사활동은 카이로프랙틱 업계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이가 없다. 엄재준 집사를 봉사활동의 모범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엄재준 집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함께 카이로프랙틱 봉사활동을 다니는 이들도 있다. 그 덕분에 엄재준 집사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봉사활동은 팀을 꾸려서 다닌다. 근래에는 봉사팀과 함께 매월 제주Acts29선교훈련센터와 B국에서 온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봉사활동을 많이 줄었는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을 그만두면서 이제는 정착해서 일할 줄 알았는데 방방곡곡 봉사활동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사실 시간 내고 돈 들여가며 봉사활동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엄재준 집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봉사활동에 도전할 것을 권면했다. 그 열매와 기쁨이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달콤하다고 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그 시작이 어렵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 삶과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2022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

3일 동안 총 3,129명 참석, 서빙고 연합기도회 2,000명 집결



마리아들이 뜨겁게 간구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2022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 (이하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 중보기도의 장(場)이었다. 하나님 나라 임재를 간구하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부르짖은 마리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그것을 증명했다.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는 지난 6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막 올랐다. 3일 동안 순백의 마리아 3,129명이 참석했다. 6월 24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연합기도회에는 2,000여 명이 집결했다.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 첫날이었던 6월 22일에는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

사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붙들고 살면 비로소 삶과 가정,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둘째 날인 6월 23일에는 정근두 목사(에스라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 목사는 “마리아는 말씀(수태고지)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뤄지도록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회 마지막 날이었던 6월 24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연합기도회가 이어졌다. 순백의 마리아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당을 가득 채운 마리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찬양

하고 기도했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의 헌신’을 주제로 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 나라는 발에 숨겨진 씨앗과 보물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는 백성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보혜 성도(이수공동체)는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꾸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면서 “앞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도록 중보기도 할 것”을 다짐했다. 김연희 성도(이촌공동체)는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면서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로 지경이 넓어졌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도 책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31일 시편기도’>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에 참석한 마리아들에게 기도 책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31일 시편기도’>를 나눠줬다. 이 기도 책자는 31일 동안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과 가족,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날짜별, 영역별 중보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매월 같은 날짜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 책자는 기도제목만 열거하지 않고, 시편 말씀을 함께 수록했다. 그날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과 가족, 나라와 열방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하도록 구성했다. 매월 같은 날짜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도의 내용과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도 책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31일 시편기도’>는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첫째, ‘기도정보’를 읽는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 생각한다.

둘째, 시편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한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

셋째,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 그날의 영역별 기도,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순서대로 한다.

넷째, 기도 책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31일 시편기도’>를 소그룹 모임에서 활용하면 더욱 좋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마리아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아쉬웠는데,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

한 선교사님들의 희생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복음을 열방과 후대에 잘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

는 것은 결국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wig가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 강희정 사역자(수원온누리교회)

온전한 회복 기대,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설교에서 많이 듣는 주제이고, 크

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막연

하고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좌절과 고난에서 온전히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두가 성령님이 부여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더욱 힘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 고현주 사역자(대전온누리교회)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가정

그 비결은 부르심의 확신과 가정예배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늘 감사와 사랑을 꽃피우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많은 가정이 마냥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본질을 잃어버린 탓 아닐까? 행복과 기쁨 넘치는 가정 만드는 비결을 모르는 탓 아닐까? 이정환 목사(도곡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본질을 일깨우고, 행복과 기쁨 가득한 가정 만드는 비결을 알려주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신앙의 사계절>, <내 마음이
아름답다> 저자)

가족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가정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제공한다. 생명 탄생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고, 쉼과 안식을 제공해주며,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한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집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이자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주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집을 구성하는 것은 가족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남편은 “이놈의 집구석 들어가기가 싫다”며 직장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어울려 놀기가 일쑤고, 부인은 집안일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게 아닌가 싶어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한다. 자녀들은 창살 없는 감옥인 집보다 밖이 더 낫겠다며 집을 등한시하고 바깥으로만 나돈다.

언제부터 우리네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신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가정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인 부유함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의 설계를 토대로 가정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돈과 명예와 인기 같은 세상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행복의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확신, 그 확신의 힘으로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면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정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정착할 것



“아브라함이 확신과 기도로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우리네 가정도 부르심의 확신과 가정예배를 통해서 늘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을 명받은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설렘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어 설렘면서도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진 모든 것과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여정에 올랐던 아브라함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없이 따랐던 것은 모험가적 기질이 넘쳤기 때문도, 즉흥적인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의 땅으로 향하면서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을 정도였다. 그랬던 그가 낯선 땅으로 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서도 결코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데도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은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불씨와 같다. 아무런 확신 없이 주변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새로이 세울 수 없다. 이 시대 많은 가정이 확신이 없어서 제자리에 멈춰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정 확한 방향성 없이 살아간다.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확신이 없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

는 데 혈안이 되거나 자녀를 더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 목적을 두게 된다. 그러면서 집이 잠만 자고 가는 하숙집 같이 되거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불편한 공간이 되고 만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확신의 자세’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확신을 하고 가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확신이 없으면 가정은 손에 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알처럼 흘러져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비전으로 이끌어가실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려면 가장 먼저 확신과 소명이 필요하다.

오래전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심방한 적이 있다. 나이 지긋했던 그 성도님의 집에 큰 가족 사진이 걸려있었다. 화목해 보이는 가족사진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미소지으며 대답하셨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고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이들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는데 힘에 부칠 때가 많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저를 책임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 기도를 올린 후부터 저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늘 화목했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렸답니다.”

확신, 그 확신의 힘으로 그 성도님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궈내셨다.

그 뒤에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확신 그 뒤에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곳으로 향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충전과 같다. 특히 가정처럼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충전의 과정이 더욱 절실하다. 그래야만 사랑과 돌봄, 격려와 행복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를 저어야만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가정이라는 배도 마찬가지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정에 사랑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행복이 도래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잘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가정은 더 잘하는 것이며,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찬송까지 부르는 가정은 가장 잘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 부끄럽게도 나 또한 가정예배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다.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첫째 아들 덕분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왜 우리 집은 가정예배 안 드려요?”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다. 나는 곧바로 아이에게 사과하고 그날 이후 꼬박꼬박 가정예배를 드렸다. 가족이 다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설교는 각자 깨닫고 회개한 것을 나눴다.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더욱 굳건해지고 가까워졌다. 기도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충만해진 것을 몸소 체험했다.

아브라함이 확신과 기도로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우리네 가정도 부르심의 확신과 가정예배를 통해서 늘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웃리치의 진정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듣던 해외 아웃리치를 처음 신청했습니다. 기대감도 크고, 걱정도 됩니다. 들인 비용에 비해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실망할 것 같거든요. 저의 첫 번째 아웃리치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아웃리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아웃리치는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는 선교의 강력한 도구이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에 쓰임 받는 것인 만큼 어떤 마음으로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웃리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현지 사역에 참여해서 돕는 것이다. 아웃리치는 선교지의 필요 때문에 개개인을 동원하는 것이고, 선교지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아웃리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웃리치는 ‘밖으로 나가(out)’ 필요한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reach)’이다. 아웃리치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

운 곳을 떠나(out) 가장 비천한 땅에 오셨다(reach). 인간을 구원하려고 복음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다. 아웃리치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막 1:41).

예수님은 고통에 처한 자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 아웃리치는 자기 울타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눔과 섬김의 손을 뻗는 것이다. 아웃리치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심으로 손을 내미셨다. 아웃리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아웃리치는 ‘그의 처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는 그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의 처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아웃리치는 현지에서 만나는 영혼들

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며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다.

아웃리치는 치유와 회복을 추구한다.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가 깨끗함을 받고 치유 받는 게 목적이다. 아웃리치의 진정한 목적은 대상의 회복과 치유이다. 아웃리치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언어, 선교적 관점을 바탕으로 선교사가 되어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웃리치 준비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좋다. 그 땅에 대한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 선교사님이 구체적으로 요청하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아웃리치 준비와 훈련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 갈 때는 비워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하고 돌아올 거라는 기대와 달리 준비한 것을 모두 펼치지 못해

도 그 땅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기도하고,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월하기에 무엇인가 줄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 형제와 동등한 수평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것과 준비한 것을 나누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진 것을 상호교환하는 만남과 사역이어야 한다.

해외 아웃리치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준비 단계부터 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이 되기를 바란다. 아웃리치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자!



이승민 목사
(길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다시 돌아가라!”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단순히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조난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길을 잃은 과정은 이렇다. 평소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찾아서 등산했다. 산과 하늘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쁘게 살아왔던 삶도 돌아보고, 머리와 어깨를 짓누르던 스트레스 덩어리도 내던지는 기분을 느꼈다. 답답했던 마음을 새롭고 신선한 공기로 한껏 충전하고 하산을 시작했다. 해는 지평선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새로운 길을 탐험하면서 걷고 싶은 호기심이 가득 남아있었다. 평소 밟아보지 않았던 길로 등산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는데 하산할 때도 그렇게 해보자는 호기로운 마음이 들었다. 해 떨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산은 더 빠르게 하기로 했다. 곤란에 처할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실행했다. 하산하면서 지름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오솔길을 걸었다. 조금만 내려가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산 아래에 도달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해는 누엣누엣 저물어가고 있었고 마음이 급해졌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더 빨리 하산할 지름길을 찾아 내려갔다. 그런데 걸을수록 산 아래 큰길과 멀어졌다.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걸어 내려가는 오솔길의 끝이 족히 수십 미터는 돼 보이는 절벽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큰 파도처럼 내 마음을 덮쳤다. 갑자기 산이 무서워졌다. 해는 곧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어둠이 섬뜩섬뜩 다가오

고 있었고, 하산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삶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을 집중했지만 좋은 답을 찾지 못했다. 마음이 급해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처지가 된 것 같은 내 모습이 우스워 보였다. 어둠, 절망, 두려움 등의 감정이 올라왔다.

움직일수록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멈췄다. 멈춰서 기도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지혜는 굉장히 간단했다. “돌아가라”, “잘못 들어선 첫 지점으로 돌아가라”였다.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었는 데도 하나님은 지름길을 알려줘서 빨리 하산할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가 길을 찾으라는 마음을 주셨다. 마음이 급했지만, 인간적인 고집과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올라갔다.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내려왔던 곳을 더듬으면서 되돌아갔다. 한참을 돌아가다 익숙한 등산로를 발견했다. 이미 해는 넘어가서 조금의 빛밖에 없었지만, 익숙한 하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캄캄한 밤이 다 되어서 산 아래 도착했다.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돌아가라”는 깨달음이 마음 깊이 남았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의 중요성도 새삼 깨달았다.

갈등을 심하게 겪는 부부들이 뒤틀린 결혼 생활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자문하곤 한다. 현재의 갈등과 어려움은 한순간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떤 사건이 쌓이고 쌓이면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냈다. 서로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부부가 있다. 아무런 관심과 사랑도 없다. 모든 열정과 애정이 식어버린 모습이다. 한겨울 식어버린 식탁을 마주하는 냉랭함과 같다. 식은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부부가 서로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이다. 좋았던 시기를 기억하면서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어떤 것들이 사라졌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좋다. 그것이 서로에 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다. 친절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일 수도 있다. 부부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결핍되었는지 찾아보면서 현재의 부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남편이 어느 시점부터 권태기를 경험했다. 예전과 같은 행복감을 경험하기 힘들어졌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시큰둥해졌다. 부부 싸움도 종종 했고,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던 정과 관심도 이제 없다. 어느 날 부부 관계를 돌아봤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했다. 남편이 찾은 것은 ‘아내에 대한 기도의 부재’였다. 근래 아내를 위한 기도를 했는지 돌아보았다. 결혼 초기에

는 아내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게 기억났다. 그런데 지금은 미움과 갈등이 쌓이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 아내를 위한 기도를 멈춘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도를 다시 시작해보자’고 생각하고 어렵고 서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아내에 대한 냉랭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기도하면서 아내의 상황이 공감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녹이는 것을 경험했다. 섬세함과 미움, 분노가 점점 누그러졌고, 아내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겼다. 남편이 찾은 것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결핍이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 친밀함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생겼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렐 4:6~7, 엡 6:18).

나눔: 부부가 서로에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 나눠보십시오. 조용히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경험해보십시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의 껏속말



《프란츠 카프카: 변신 외 77편》
프란츠 카프카 저 | 현대문학 | 19,000원

《변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중에서 《황제의 칙령》이라는 소설이 있다. 크리스천에게 주는 의미가 커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임종을 앞둔 어느 황제가 있었다. 그는 아주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신하를 불러 껏속말로 뭔가를 속삭였고, 그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귀에 들은 내용을 반복하게 한 다음 멀리 떠나보냈다. 칙사가 된 신하는 곧바로 길을 떠났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힌다. 일단 그를 저지하는 수 많

은 사람을 뚫고 나가야 했다. 자기의 길을 막는 사람들에게 동행증을 뜻하는 가슴에 달린 표를 보여주면서 헤치고 나아갔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황제가 있는 곳은 구중궁궐로 방을 지나면 또 방이 나오고, 수많은 계단과 뜰을 지나도 여전히 궁궐 안이다. 칙사는 미로 같은 궁궐을 헤매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카프카는 “그 궁궐을 빠져나가려면 수천 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칙사가 궁궐의 가장 바깥쪽 성문을 나간다 해도 황제가 거하는 수도가 그 앞에 펼쳐질 뿐이지 그는 결코 바깥으로 뚫고 나가지 못한다. 소설은 칙사가 궁궐 안을 계속 방황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그대는 저녁이 오면, 그대의 창가에 앉아 그 칙령이 오기를 꿈꾼다...”

무슨 뜻일까? 황제의 전갈을 가진 칙사가 궁궐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에게 황제는 껏속말을 속삭였고,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 짧은 소설을 영적으로 해석한 이가 있다. 소설가 이승우 교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언어로 전하는 사명을 가진 몇 안 되는 소설가이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황제의 껏속말은 신하를 예측시키고, 황제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다. 껏속말로 전했다는 것은 그것이 매우 은밀한 것이고, 들은 내용을 다시 반복 확인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갈임을 알

려 준다. 곧바로 내보냈다는 것은 시급성을 나타내고, 성 밖 사람들의 운명과 연결된 책임이 틀림없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카프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독자의 상상력에 의하면 그것은 복음일 수밖에 없다. 왜소하고 초라한 신하에게 껏속말했다는 것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껏속말로 전했다는 것은 호렘산에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한다.

껏속말이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다. 친하지 않더라도 껏속말을 듣게 되면 친분이 생기고, 그 내용을 깊이 간직하게 된다. 한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신으로 만드는 것은 황제의 껏속말이었다. 하나님은 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까? 그분이 인격적하시고, 자발적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승우 교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황제의 껏속말을 듣지 못한 채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사신의 비참함을 언급한다.

“은밀한 관계없이, 그들만의 교감과 사적 비밀 없이, 그저 사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적으로 들음 없이, 큐티를 통한 매일매일의 영적 인도함 없이 그저 사명에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피곤함과 비참함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많고 어려워져 힘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껏속말을 듣지 못했기에 힘든 것이다. 사역의 결과보다 과정 중에 경험하는 영적 체험과 기도응답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원래 영원에 속하는 하늘 궁궐의 언어이다. 영원에 속하는 궁궐의 언어를 궁궐 밖으로, 그것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속언어로 전하려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카프카는 그 모든 어려움을 구중궁궐을 빠져나가기에 불가능하고, 나가려면 천년이 걸린다는 은유로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설의 결말이 무엇인가? 황제의 전갈이 궁궐을 빠져나갈 수 없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저녁마다 그대의 창가에서 그 칙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황제의 칙령을 받은 사신은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 사신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궁궐 밖을 나가 황제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유일한 원동력은 황제의 껏속말이다. 가슴속 깊이 새겨놓아 전하지 않고는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친밀하고 세미한 음성이다. 오늘도 힘들게 사역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껏속말을 듣고자 한다.



허원희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교회 본질 회복하는 대안 ‘공동체성’



《온전한 연결》
최성은 저 | 두란노 | 19,000원

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적 지침으로 가르쳐 준다.

성경적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답을 얻고 싶은 목회자, 교회공동체에서의 사명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기 원하는 성도,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비밀을 알고 싶은 성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기독 OTT ‘풍당’ 콘텐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단 바로알기》

이단은 교주를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신격화한다. 또 이단 교주들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벤치마킹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신천지의 교리도 박태선과 유재열에게 벤치마킹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단체다. 그런데 창립자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다. 창립자 안상홍은 1985년 사망했는데 신도들은 여전히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30~40대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포교한다. 전국 각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150여 개나 있다.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누가 속아 넘어가겠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단에 대한 경계가 느슨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탁지일 교수(현대종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이단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포교 교육 통제를 위한 모바일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님을 검색하면 전능신교가 만든 이단들의 자료가 나옵니다. 손품을 팔면서 비성경적인 자료와 교육을 찾아다니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장로 소천 3주기 추모예배

6월 30일 11시 20분 한동대학교 김영길 그레이스스쿨



사진은 한동대학교 그레이스스쿨 김영길 장로 수목장.

오는 6월 30일(목)은 김영길 장로(한동대 초대총장) 소천 3주이다. 김영길 장로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예배를 6월 30일 오전 11시 20분 한동대학교 김영길 그레이스스쿨에서 드린다. 유가족과 한동대학교 교직원, 동문, 학부모, 온누리교회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길 장로 소천 3주기 추모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최도성 총장과 김요한 동문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한동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카우치’의 위식 특순과 유가족의 특주가 이어진다. 故 김영길 장로는 199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상북도 포함시에

있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했다. ‘공부해서 남 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세상을 변화시키자)’를 슬로건으로 기독교 정신 기반의 인성교육에 앞장섰다. 2016년 6월부터는 한동대 명예총장으로 섬기다 2019년 6월 30일 소천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병상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병원심방전도팀, 환우 위한 기도 요청 받아

병상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병원심방전도팀에서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2층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로비에 비치된 ‘환우중보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우중보요청서에는 전도하려는 가족의 병환 상태와 기도제목, 요청자 연락처 등을 적으면 된다. 사연이 접수되면 병원심방전도팀 사역자들이 요청자와 함께 기도하고, 병원 심

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병상 세례도 준다.

문지호 팀장(서빙고 병원심방전도팀)은 “병상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들이 영원히 안전하다”면서 “병상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된 일에 많은 성도가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서빙고 010-6354-7813

양재 010-6727-062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말씀 해설 및 중보기도 제목 모집

이메일로 신청, 중보기도 요청 익명으로도 가능

〈온누리신문〉에서 성도와 함께 만드는 ‘말씀과 기도’ 지면을 신설했다. 말씀과 기도 지면에서는 온누리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말씀을 쉽게 해설해주고, 한 주 큐티 본문을 미리 공부하며, 긴급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장(場)을 제공한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 해설과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은 이메일(hha0@onnuri.org)로 신청하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긴급한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hha0@onnuri.org

보육원 아동 결연 및 퇴소청년 지원 설명

선한울타리 세미나 6월 30일 오후 7시 강남드림빌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보육원 아동 결연 및 보육원 퇴소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6월 30일 오후 7시 강남드림빌(아동복지시설, 강남구 양재대로 344-27)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남드림빌 이은영 원장이 보육원 아동과 보육원 퇴소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고아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창화 집사(선한울타리사역)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성도들이 이번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서 보육원 아동을 돕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434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7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

선교를 이해하고 배우는 ‘갈렙선교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갈렙선교학교는 7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청하고, 그다음 주에 조별 모임을 하는 방식이다. 수강신청은 7월 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문화장벽과 선교’, ‘갈렙의 변화관리’, ‘미션헬퍼십’, ‘이주민 선교’, ‘선교사와 동역하기’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708-7700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7월 22일~30일 매주 금, 토 오후 3시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7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관계 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6330-7634

알콩달콩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알콩달콩부부학교’ 본부 1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다.

알콩달콩부부학교는 부부의 ‘하나 됨’을 위해 건강한 떠남, 성경적 가치관, 부부의 성, 대화법, 재정관리, 자녀양육에 대하여 배우고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커플 당 60만원(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회비 포함).

문의: 02-2182-9110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기본과정)’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보!

세계관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를 변호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기본과정)’ 세미나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동영상, Zoom)으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계관들을 분별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성벽을 바로 세워 신앙을 지키는 훈련과정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

이, 모순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우월한 세계관임을 배울 수 있다.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가 ‘구원의 기준’, ‘진리의 기준’, ‘존재의 근원’, ‘믿음의 기반’, ‘선악의 기준’, ‘고통의 원인’, ‘법 정의의 기준’, ‘정치 정의의 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 있는 성도와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 7월 1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0

6월 세레자

■서빙고

박용근 정예지 210324 김성준 210225 이응주 손희주

김태민 910617 송로이엘 190521 한상우 김고운 김병윤 이승희 장하엘 210628

방은성 690912 송동역 정은미 함주원 190819 김아울 211114 장재원 장보라

유아 염하윤 201204 함상엽 최하경 김형욱 강상은 전지혜 211213

구본희 201201 염상준 손진숙 박유빈 200505 전종원 김채운

구재명 강민혜 오서진 200822 박성우 손지해 정이현 201223

김건우 201208 오현목 백승현 박하울 191003 정지훈 이효선

김범수 이정화 오우진 211203 박준우 이호정 차하윤 180323

김연우 201208 오현목 백승현 한 국 720507 심주는 190930 차승재 한연희

김범수 이정화 이로는 200921 임교 040902 유현규 210908 최재원 210826

마이엘 200815 이재겸 210105 양 선 040902 최혁수 고선희

마승훈 이하은 이재겸 210105 윤지환 970108 유성은 조다현 홍석준 210518

박서진 211026 이용희 방계정 주혜준 200615 김민호 200723 이예지 200729 홍정기 김지원

박찬주 김지희 주건영 양슬기 김병천 박기호 이주안 211001

박주호 220214 최유준 220318 김빛나 210222 이민성 안하경

박우영 이가영 최재하 유현정 김예찬 강미은 이지안 191206

■양재

민덕기 700720 이승범 960528 한 국 720507

이승범 960528 김성준 210225 이응주 손희주

김아울 211114 장재원 장보라

김형욱 강상은 전지혜 211213

박유빈 200505 전종원 김채운

박성우 손지해 정이현 201223

박하울 191003 정지훈 이효선

박준우 이호정 차하윤 180323

심주는 190930 차승재 한연희

임교 040902 유현규 210908 최재원 210826

유현규 210908 최혁수 고선희

유성은 조다현 홍석준 210518

이예지 200729 홍정기 김지원

이주안 211001

이민성 안하경

이지안 191206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이재현 920309

정재훈 940212

이수호 211116

이종현 김민경

하늘

고 준 000918

허브

유승연 970323

이상형 031008

오현중 980917

이진영 971002

정지우 980203

행복반 수료 간증



/ 김진아 성도(수원온누리교회)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것 같다!

남편의 늦은 신학 공부로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다. 함께 사는 시어머니와의 20여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오랜 갈등도 있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거절감으로 다른 집 남자와 비교하며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숙하고 주님 안에서 잘 지내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격려받으려고 에너지를 너무 소비했다.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거절감을 느끼면 곧바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화를 억누르고 있다가 계기가 생기면(특히 남편에게) 과하게 폭발했다.

행복반을 듣기 전 나에게 예수님은 항상 멀리 있는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였다.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가깝게 느껴졌지만, 멀리 계신 분이였다. 말씀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이 가시덤불 같은 나의 내면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졌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좋아하지 않을거야’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반 과정을 들으면서 나를 한결 같이 사랑하시고, 화락의 화관을 씌워주신 예

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다. 나를 미워하는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거뒀다. 용서와 회개의 과정을 실천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20여 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나에게 했던 비난의 말로 상처받고 힘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잘못된 부분이 더 많이 떠올라 회개했다. 시어머니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던 내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었다. 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긴 경제적인 갈등과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을 모두 남편 탓으로 여겼는데 아니었다. 나의 인격의 결함도 단초가 되었음을 인식했다. 내가 남편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격려했더니 더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대화가 끊이지 않는 부부가 되고 있다. ‘행복큐티’에서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피드백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주변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풍족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것 같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이일환 순장(S브릿지공동체)

순장 면허증을 발급받다!

매년 찬양팀을 섬기다 보니 순장학교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항상 ‘다음에는 해야지’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특순 순장, 새가족 큐티 총무 등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의 순장은 해봤는데 늘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행정적인 순장 역할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무면허 순장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공동체에서 일반순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순장학교에 참여했다. 매주 큐티를 두 번씩 나눠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주제 강의를 시청해야 하고, 요약문도 작성해서 올려야 했다. 독후감에 수료 간증까지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내게 너무 큰 벽으로 느껴졌다. ‘순장의 다짐’을 주제로 동영상 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이 더 커졌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곤란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순장학교에 있다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노력했다.

순장학교를 수료하기 전에는 ‘순장은 순원을 잘 케어해주고, 기도만 열심히 해주면 되

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내 오만과 무지는 순장학교 1주차 강의에서부터 산산조각 났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설명하면서 순예배 중에 생길 수 있는 긴장 및 갈등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그때 내가 얼마나 순원들에게 무심했는지 알게 되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순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곱씹었다. 옛날 순원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장이 되기 위해 ‘경청, 공감, 사랑, 기도, 배려, 케어, 격려’라는 키워드를 배웠다. 순원들의 나눔과 아픔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순장이 되고 싶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말처럼 순원을 사랑하며 중보기도하는 순장, 순원의 상태와 마음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케어하고, 격려하는 순장이 되려 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면허 순장이었던 내가 순장학교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새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순원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순원들을 섬기며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다.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권려진 성도(기쁨이있는교회)

천국 문 여는 열쇠를 쥐다!

우리 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학 생활을 접고 2020년 여름 귀국했다. 길었던 유학 생활은 내게 많은 스트레스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줬다. 남편을 만나고 느꼈던 감동과 기쁨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원동력이었다. 남편도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그런데 내 우울의 깊이는 생각보다 깊었다. 우울의 뿌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남편과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고통의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숨을 공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내 어두운 모습을 남편이 모두 지켜봤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젊은부부학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부부는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받았다. 내려갈 바닥이 없을 만큼 서로를 향해 악함을 퍼부었고, 지쳐서 나동그라져 있었다. 게다가 내가 섬유근육통이라는 난치병을 진단받으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젊은부부학교 첫날 집 앞에 도착한 간식박스를 보고 기분이 싱숭생숭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정성스럽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다. 그 감정을 시작으로 끝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첫 과제를 마쳤다.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도 읽을 수 있었다. 독후감을 쓰면서 복잡했던 감정이 안정을 찾았다.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부의 시작과 연합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달았다. 특히 창세기에 있는 “여자는 아내로 지어졌다”는 말씀이 큰 감동이었다. 내가 그토록 남편과 연합을 꿈꿨던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고통과 서러움을 경험하면서 아등바등해왔던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남편도 내 아픔을 서서히 이해해주었다.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나와 남편의 노력이 삶의 기쁨을 되살리는 기적을 가져왔다. 젊은부부학교가 그 문을 열었다. 우리 부부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삶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해주신 젊은부부학교 스태프들께 감사하다. 더 많은 부부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생각해봅시다



/ 송인선 집사(부천온누리교회)

그 아이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낳은 자녀는 한국인일까? 외국인일까? 당연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은 한국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은 국적만 한국인일 뿐이고 사실상 외국인으로 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남편과 불화가 있으면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부부의 불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자녀들이 떠안고 있다. 부부들이야 각자 나라에서 서로가 없었던 것처럼 살면 그만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렇다. 부부 싸움이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1년이 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됐다. 그 사이 한국에 있는 남편은 배우자 가출 신고와 이혼소송을 마치고 호적정리를 끝냈다. 결혼이주여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산다.

지난주 P국 국적 결혼이주여성 은혜 씨(가명)와 안부를 묻는 통화를 했다. 은혜 씨는 P

국에 막 도착했다고 했다. “무슨 일로 고향에 갔냐”고 물었더니 조카(11세)가 이틀 전에 백혈병으로 죽었다면서 동생을 위로하려 고향에 갔다고 했다. 은혜 씨의 동생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다가 남편과의 불화로 자녀를 데리고 고향에서 살고 있었다. 자녀가 백혈병 투병하고 사망하는 사이 남편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화들짝 놀라서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이 있는 아이니까 꼭 한국대사관에 신고하고 장례송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 해주었다.

은혜 씨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은혜 씨 주변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은혜 씨의 가족들은 그 아이가 한국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며 통곡했다. 의료환경이 좋은 한국에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을까? 내 마음도 미어졌다. 무시와 차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경기글로벌센터: 032-344-1412

신앙에세이

무가치에서 가치로

최종현 목사
(허브대학부)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작은 사각형 안의 색과 형태가 전달하는 감정과 가치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렇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 조그마한 영역이 한 사람을 나타내고, 제한된 공간 안에 한 사람의 깊은 삶의 고민까지 담겨 있는 게 정말 신비하다.

그림은 공백에서 시작된다. 흠뻑려진 물감에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 있지 않다. 수많은 색이 존재한다 해도 마음은 없다. 화방에 가면 흰 캔버스에 널려 있지만, 길가의 돌멩이와 크게 다를 건 없다. 그러나 색이 붓에 담기고 하나의 평면에 칠해지면 숨을 얻는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공백이 채워지면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창조성이 부여된다. 생명력을 갖춘 색이 캔버스에서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한다. 캔버스에 갇히는 것은 색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이자 존재하는 길이다. 캔버스에 펼쳐진 색채와 형태의 상호 필연적인 만남이 그림이 된다. 무가치에서 가치로 다시 태어난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이 땅에 흠뻑려진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팔레트 위에서 홀로 색을 품다가 굳어버리고 마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수많은 인생이 존재한다 해도 죽음이 모든 것을 압도할 뿐이다. 제아무리 화려한 색깔을 자랑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단 한 가지, 색이 그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 3:3b).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다. 니고데모는 탁월한 색깔의 소유자였다.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님도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칭하셨다. 눈에 띄는 존재감과 세상이 박수치는 돋보이는 색깔이 선명하다. 그러나 한 개인의 역량은 중요하지 않다. 니고데모는 변화의 가능성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격변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는 굳어버린 물감일 뿐이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감이 붓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림이 될 수 없다. 의미 없던 색이 붓을 만나 그림으로 변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바뀐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진리를 품게 된다. 성령님께 붙들릴 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적 변화가 시작된다. 그것 말고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다른 방법이 없다.

때로 세상의 가르침을 보면 스스로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 같다. ‘너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가능해,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라’ 도대체 날개가 없는데 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얇은 종이에게 찢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준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빛은 외부로부터 온다. 인간의 내부에는 그 어떤 발광의 근원도 없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낯선 의가 필요하다.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든 붓으로 ‘나’라는 색깔을 담아 사용하실 때 모든 것이 의미를 찾게 된다. 무가치한 존재에 가치를 부여한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우리가 채우게 될 그림은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어떤 색깔,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화가에게 의미 없는 색은 없다.

권사칼럼

주님과 리마인드 웨딩을!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평소에도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기를 잘했다. 그런데 힘든 일도 그렇게 없는데 기운이 없고 기력이 떨어져 더 눕고 싶었다.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도 한두 번 쉬었다 오곤 했다. 나는 영락없는 노인네였다. 당뇨 초기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아침마다 혈당을 확인하면서 수치에 따라 걱정하고 안심하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친구처럼 따라왔다. 내 안에서 ‘나이 들면 다 그렇고, 너도 별수 없는 거야’라는 소리가 들렸다. “꿈꾸는 만년 소녀”, “전반보다 후반 인생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던 나는 온데 간데없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이 떠올랐다. “오늘을 힘겨워하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얼른 찬양 가사를 찾아보았다. 찬양 가사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넘치고, 주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다. 내 상태와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영적 치매 전조증상인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한다. 백세시대여서 그런지 치매 걸린 노인들을 많이 본다. “다 기억 못 해도 예수님만은 잊으면 안 돼요”라고 거듭 말하며 전도한 장본인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돌이키고 회복되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나도 이 찬양이 기억났다. 20년 전 시어머님의 기도도 생각났다. 시어머님께 내가 “모세처럼 이 세상 살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

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다. 88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시어머님은 매일 세번씩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함께 이 기도를 하셨다. 기도하신 대로 시어머님은 100세까지 눈이 밝아 돋보기 없이 성경책을 많이 읽으셨다. 기력도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 주님 품에 안기셨다. “너도 네 어머니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렸다.

나는 75세인 지금까지도 눈이 밝아 깨알 같은 글씨를 잘 읽는다. 지하철 안에서 손바닥만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옆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을 걸기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 그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 17:8)는 말씀이 나의 힘이다.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올 8월 남편 팔순이다. 노부부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리마인드 웨딩 촬영하는 것을 심심찮게 본다. 나도 따라하고 싶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나와 리마인드 웨딩하자”는 마음을 주셨다. 영적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미래에 행하실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라는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레기 시작했다. 기운 없는 늙은 신부가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 같은 찬란한 신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까진가 봐’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렸다. 언젠가 “지우개는 지우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필에게 다시 써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내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곱씹어 기억하면 된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리마인드 웨딩마치가 들리는 듯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다.

장로칼럼

단칼에 목이 떨어지는 것도 은총이다!

박봉래 장로
(김포공동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빌 1:20-21).

르네상스 후기 화가 자코보 틴토레토의 〈바울의 참수(The Martyrdom of St Paul)〉를 보면서 바울의 죽음을 함께 묵상하고 싶다. 그림은 복음을 향한 불꽃 같은 인생을 산 바울이 참수당

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 불신자이자 교회 박해자였던 바울이 AD 35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극적으로 대면하고 회심한다. 이후 AD 67-68년 순교에 이르기까지 33년 여정을 마감하며 돌기둥과 마주했다. 도마 위에 오른 순간이다. 바울이 무릎을 꿇은 채 상체를 곧추세우고 사슬에 묶인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기도하고 있다. 젊을 날 강고했던 바울의 어깨와 등쪽의 살들이 온데간데없고 뼈만 부처살 같이 드러나 있다. 소문대로 소갈머리 정수리도 흰하다. 이생을 마감하는 순간 하늘을 향해 드린 기도는 그의 ‘스완송’이었다. 죽음 앞에서 두렵거나 슬퍼하지 않고 담담하게, 어쩌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닌가?” 칼잡이 망나니가 날 선 칼을

양손으로 잡고 곧 바울의 목을 향해 날릴 태세다. 단칼에 목이 떨어지는 것도 은총이다. 안 그러면 여러 번 목을 칠 테니까. 하늘에서는 천사가 양손에 면류관과 월계수 잎을 가지고 순교자를 하늘로 영접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지 않던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스완송 〈모래톱을 넘어서〉가 생각난다.

해는 지고 저녁 별 빛하는데 / 날 부르는 맑은 목소리

내 머리 바다로 떠날 적에 / 모래톱에 슬픈 울음 없고

나무도 총만하여 소리도 거품도 일지 않는 / 잠다듯 흐르는 그런 조수 있었으면

끝없는 심연에서 나온 이 몸 / 다시 제집으로 돌아갈 때에

황혼이 갖든 녀 저녁 종소리 / 그리고 그 뒤에

질어지는 어둠

내가 배에 오를 때 / 이별의 슬픔 없기를

시간과 공간의 경계 너머로 / 물결이 나를 멀리 실어 낸다 해도

내가 모래톱을 건너고 나면 / 내 인도자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에 장시간 고통받다 죽는 십자가형에 처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혜택으로 그나마 고통이 덜한 참수를 당했다. AD 313년,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로마 콘스탄틴 대제는 사도 바울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곳에 가면 세계 복음화의 기수였던 사도 바울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의 참수)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중장년의 인생 2막 응원하는 ‘서초50플러스센터’



홍태임 센터장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50플러스센터는 온누리복지재단의 13번째 수탁기관으로 복지 현장에서 다소 생소한 50세대(50~60대)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50세대는 베이비부머, 신중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을 말한다. 은퇴 전후에 있는 중장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와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로 설립되었다. 50세대는 서울시 총인구 중에서 약 23%를 차지한다.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 사람들 대부분 100세 장수의 삶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생애주기다. 중장년층은 은퇴 전환기에 있는 연령대로 사회생활 역량이 아직 있음에도 주된 일자리에 서 퇴직해야 하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세대이

다. 동시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책지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세대다. 종전의 복지 서비스 개념을 탈피해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하다. 서초50플러스센터에서는 50세대가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도록 돕는 ‘인생설계사업’, 100세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는 ‘100세인생아카데미프로그램’, 일과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공헌을 추구하는 새로운 커리어(Career) 경로를 모색하는 ‘일 활동사업’, 서로의 지식과 능력, 경험을 공유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당사자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50세대를 위해서 저녁과 주말에도 센터를 운영한다. 서초50플러스센터 개관을 준비하면서 50세대가 각자의 꿈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기를, 그 용기가 마음속 희망에 작은 불씨를 지핀

으로써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기를, 그 능력의 불꽃이 지역사회를 밝게 비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했다. 감사하게도 센터 이용자들의 소감에서 그 소망을 엿볼 수 있다. “은퇴 후 우울하고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센터에 와서 영상편집도 배우고 영상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영제단(영상 제작봉사단) 활동이 내 삶의 활력이 되고 보람도 느낀다.” “은퇴까지 일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만이 아닌 것을 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도움을 나누고 싶다. 서초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알았고,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내가 가진 콘텐츠로 BTS(Best Teacher of Secho)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강의 기회를 줘서 고맙고, 내 안의 역량을 끌어내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우리는 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라는 것을 말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한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50세대를 위하고 자 고군분투하며 함께 일하는 귀한 직원들과 온누리복지재단의 든든한 지원,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2020년 12월 21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센터를 개관할 수 있었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지난 1년 반 동안 16,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440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5천여 명의 수강생과 200여 명의 사회공헌 활동, 100여 명의 일자리 연계도 이루어졌다. 서초50플러스센터가 50세대가 인생 전성기를 이루도록 돕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50+세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참여와 50+세대의 도전과 멋진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579-5060

내가 만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잠시 꿈을 쉰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9일 그토록 바랐던 주사랑찬양사역팀 목요연습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소리 내 찬양은 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지만 그래도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많은 성도님이 저를 포용하고,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 흘리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사랑찬양사역팀과 관악금천공동체 모든 지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14일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나고 4월 초부터 이상 증세가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숨이 차다 관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루 코로나 19 확진자가 40~50만 명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주위에 코로나19에 걸렸던 분들이 있어서 숨이 차는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다리 아픔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5월 14일에는 호흡곤란, 숨 막히는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는데 ‘폐색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응급으로 약물투여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상태는 중환자실로 바로 올라가야 할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아내는 주사랑찬양사역팀과 관악

금천공동체, 순 단체채팅방에 긴급기도요청을 했고, 많은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 각 중보기도방에 올라온 저를 위한 어마어마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을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곧바로 중환자실로 가야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응급실에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제 곁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있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곧바

로 보이는 맞은편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비추는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읊조렸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5시간마다 혈액 수치를 확인해야 했는데 그로 인해 제 양팔과 손등에 주삿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동도 차근차근하면 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설명해주셨는데, “정상”이라는 말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날인 6월 9일, 주사랑찬양사역팀 연습에 참석했습니다. 완쾌된 것은 아니지만 찬양이 그리워서 참석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소리 내지 못하고 듣기만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지난밤에 잘 자고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사랑찬양사역팀과 관악금천공동체, 순원들의 기도문을 출력해서 노트에 끼워놔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겨내겠다는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겠지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이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소서”(사 38:16).



주익수 순장
(관악금천공동체, 주사랑찬양사역팀)

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으면 불안했을 텐데 응급실에서 아내의 기도와 위로 덕분에 그 힘든 투병 과정을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첫날 밤,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영화 스크린처럼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 죄까지 보여주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저했어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는 죄들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침대가 중환자실 창가였는데,

더는 바늘을 찌를 곳이 없어서 양쪽 다리와 발등에서 피를 뽑아 검사했습니다. 피를 뽑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입원할 때만 해도 심장과 간 등의 수치가 최고치에 있었는데, 퇴원하고 2주가 지난 6월 8일 검사에서는 모든 결과(심전도, 복부, 흉부 엑스레이, 심부전, 뇌, 심장수축, 혈청, 혈액응고, 간,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담당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8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일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뵘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다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큐티스쿨-서빙고

일시: 7월 3일~8월 13일

장소: 온라인(매 주일 강의 링크 공지)

신청: 아이스쿨(7월 2일까지)

문의: 010-3766-9881(문자)

내척치유학교

일정: 7월 22일~30일 매주 금,토

시간: 오후 3시~9시

장소: 온라인

신청: 아이스쿨

회비: 6만 원

문의: 010-6330-7634

양재

02. 573. 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섭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임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담당: 박사무엘 목사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문의: 010-9927-4224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지부 162기

지원자 모집

일시: 8월 6일~9월 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9월 3일 5주 차 수료예식(양재온누

리교회 화평홀)

강의: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접수: www.father.or.kr, 아이스쿨

문의: 02-2182-915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 322. 9686

토요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선교지에 복음의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드림온 썸머크리스마스 캠페인'

선교사님들이 고국의 언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CGNTV 셋탑박스를 선물해주세요!

하나, 셋탑박스 후원하기

- 후원기간** — 6월 19일 ~ 8월 21일
- 후원금액** — 1대당 15만원 (개인, 공동체 이름으로 후원가능)
-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3-910010-05904 (재)온누리선교재단

둘, 아웃리치, 셋탑박스 무상지원받기

- 지원기간** — 6월 20일 ~ 8월 21일
- 지원대상** — 아웃리치를 진행하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 지원내용** — 국내외 선교사, 무목교회 등에 무상으로 셋탑박스 지원



캠페인 안내 | 신청 문의 02-796-2243

CGNTV